

## 조선후기 호위제도의 고찰\*

### Study on the Guarding System in the latter "Choson" era

이 성 진\*\*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결론 |
| II. 각 시대별 고찰 |         |

#### <요 약>

조선시대의 경호제도는 경국대전 세조, 예종 때에 완비되고 성종 때에 보충됨으로써 이 법전을 근거로 하여 우수한 군사를 선발하여 근접경호를 담당하는 금군과 수도방위와 시위임무를 담당하는 중앙군에 편성함으로써 왕실호위체계가 확립되었다. 임진왜란을 기준하여 볼 때, 전기에는 내금위, 검사복, 우림위, 정로위로 구성되었던 금군이 후기에 들어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였다.

조선전기에 국왕의 신변보호와 수도권 방위에 주력하던 금군의 임무가 임·병 양란의 영향으로 변란과 외적침입을 막아내는 전쟁을 아울러 수행 하는 상황에서 전에 임시방편적으로 설치되었던 비변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의 군사제도의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5군영제의 실시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3군영이 국왕 호위와 수도방위를 담당하였고, 총융청, 수어청은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수도권외곽의 방어를 담당케 하였다. 따라서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금군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인원이 대폭 증가되고 현실인식과 자아각성으로 인한 서민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왕실과 국가의 호위체제에도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종전에 있던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 실제로 호위를 맡은 군사보다 명분상의 숫자가 늘어난 결과가 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호위청, 금군청, 숙위소, 장용영 등의 금군의 재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뒤따르는 재정적 뒷받침에도 문제가 되는 가운데 기존의 기본조직들의 위상에 대한 변화도 심해졌다. 정조의 등극은 호위제도의 변화에 획기적인 시대였다. 정조는 친족들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숙위소를 신설하고 장용영을 강화하여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 당대에 한했지만 왕권을 강화하였다.

주제어 : 조선후기, 금군, 왕실호위, 군사제도, 장용영

\* 본 논문은 2008년도 호서대학교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호서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 I. 서 론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조선시대 후기의 호위제도의 고찰이다. 조선은 건국에서부터 500여 년간의 장구한 시대에 걸쳐 왕실을 호위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조선시대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고려시대의 제도를 기본적으로 답습하고 조선이라는 신흥국가의 면모를 일신하며 왕실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이에 걸 맞는 제도를 개혁하여 제10대 성종에 이르러서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으로 완성하였던 것이다.

왕실호위제도는 왕실의 안정을 위하여 가장 핵심이 되고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200년간의 태평을 누리는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나 임·병 양란 이후 주변정세와 사회상이 달라짐에 따라 왕실호위는 왕실의 안전만이 아니라 국가안전의 핵심임을 자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자각운동은 영·정조에 이르러 실학의 영향으로 일시적이거나 실질적인 제도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조선전기의 왕실호위가 대내적인 것이었다면 후기의 왕실호위는 대내와 대외의 상황을 대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선후기의 호위제도는 국가발전의 매우 중요한 제도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의 제도는 원·명의 세력교체가 중요한 환경이었다면, 후기는 임·병 양란이 모든 제도 변천을 가져온 환경이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호위제도의 변천에 따른 시대구분은 임진·병자 양란을 중심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것이 통상적이거나 여기서는 국력이 쇠약해지고 왕실이 위기에 처했던 시대를 말기로 하여 전기-후기-말기의 3단계로 시대를 구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호위제도는 임·병란 이후 광해군-인조-효종-숙종대의 변화를 거쳐 영·정조대의 혁신적인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조선후기 호위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경호제도의 변천을 제시하고 경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경호에 대한 학문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각 시대별 고찰

### 1. 임·병 양란의 영향과 5군영체제

임·병 양란의 영향이란 현실자각과 양반들의 자각을 말한다. 이제까지 양반주도의 세상이 서민을 중시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전기에 형성된 5위(五衛)체제는 의흥위(義興衛), 용양위(龍驤衛), 호분위(虎賁衛), 충좌위(忠佐衛), 충무위(忠武衛)로 형성된 것으로서 국왕의 숙위와 도성치안 유지를 수행해왔다. 그러던 것이 후기에 들어와 궁궐만이 아니라 궁궐 밖의 호위가 중요함을 인식하여 5위체제가 정비되면서 5군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5군영 중에서 훈련도감(訓練都監),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의 3군영이 국왕호위와 수도방위를 담당하였고,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은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수도권 외곽방어를 담당하였다(이충수, 2004: 54). 이들 5군영은 일관된 조직 체계라기보다는 긴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 설치,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각 군영의 기능은 종전과 유사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개편되고 정비되었다.

훈련도감(訓練都監)은 왜란 중에 군제의 개편작업으로 1594년(선조 27)에 신설하고 포수(砲手), 사수(射手), 살수(殺手) 등 3수병(三手兵)을 양성하였던 기관으로 출발된 임시 기관이었다. 이는 일찍이 왜구방어에 탁월한 효과를 거두었던 명나라의 절강군의 병법을 채용한 것으로 조선후기 군제의 근간이 되었으며, 그 후 차례대로 5군영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양반으로부터 농공상의 천민에 이르기까지 역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두 징발하여 양천훈련군으로서 속오군(東伍軍)에 편성됨으로 조선후기에는 훈련도감을 근간으로 하여 중앙의 5군영과 지방의 속오군이 핵심적인 호위병으로 등장되었다. 그 지휘관은 훈련대장으로 오늘날의 육군참모총장이나 경찰서장에 버금가는 것으로 정치적인 비중이 높다(이충수, 1997: 40)고 할 수 있다. 왜란 중 환도하여 가장 먼저 설치된 군영으로 양민구제와 정병양성의 제도를 겸한 목적으로 명나라 장수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에 입각하여 왜란 중에 설치되었고 상설기구로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렸다.

어영청(御營廳)은 약화된 후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호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1624년(인조1)에 설치되었으며, 이괄의 난이 일어난 직후 인조의 공주 피난길을 훈련도감 군사와 함께 어마(御馬)를 호위했다. 어영청의 초기병력은 260명으로 충

말하였으나, 점차 1,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질적인 면에서는 가장 정예화된 조직이었다. 정유호란(丁酉胡亂)이후 1628년(인조 6)에 어영청 군사들을 75일씩 번상하게 하였다(육군사관학교한국군사연구소, 1968: 79). 이때 6,170명의 군사는 8번으로 나누어 한번에 780명씩 호위근무를 하였다. 이는 인조가 대내외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대외적인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국왕호위를 명분으로 설치한 군영이었다.

효종은 병자호란 때, 청국에 볼모로 잡혀가 직접 수모를 당하였던 군왕이다. 효종은 이러한 수모를 씻는 방법이 군사력을 길러 북벌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훈련도감이 담당하는 급료제도를 대신하여 보인(保人)들의 부담으로 번상(番上)하는 체제로 어영청을 운영하고 이를 북벌군에 활용함으로써 어영청을 크게 확대하였다. 안으로는 왕권호위의 정예군으로, 밖으로는 북벌의 선봉군으로 삼고자 하였다.

금위영(禁衛營)은 1682년(숙종 8)에 궁성의 숙위를 강화하기 위해 훈련도감의 별대(別隊)와 정묘군(精妙軍)을 통합하고 이에 훈련도감의 과잉 인원을 합쳐 설치하였다. 금위영은 정군 14,098명을 105초(哨)로 편성하고 이를 10번으로 나누어 2개월씩 근무하도록 했다. 금위영은 훈련도감, 어영청과 함께 도성에 본영을 둔 중요한 숙위군영의 하나로 등장하였으며, 이 후 이 셋을 3군문(三軍門)이라 칭한다. 연이은 전란으로 재정이 궁핍해지고 급료가 부담이 된 훈련도감과 어영청의 보인(保人)제도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되자,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숙종 때에 이르러 금위영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본 취지대로 운영되지는 않았고 다만 금군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여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이충수, 2004: 57).

총융청(摠戎廳)은 1624년(인조 1)에 이괄의 난을 계기로 서울과 경기도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소속된 속오군(束伍軍)을 중심으로 편성된 군영이다. 이는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경기도 일대의 방어를 책임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 기여한 군영이었다. 북방으로부터 침략등 유사시에 도성을 포기해야 할 경우 국왕은 강도로 피신하고, 군을 받아들임으로써 강도로 압박을 가하는 적군의 예봉을 둔화시킨다는 전략에 총융청이 설치되었다. 1646년(인조 23)에는 총융청의 아병을 선발하여 겨울동안 3개월간 궁성 숙위 임무를 맡게 했고 다만 어영청 군사들의 징발로 인하여 궁성의 수비가 허술해지자, 도성에 입번하여 궁성숙위의 임무를 맡음으로써 중앙군의 테두리에 배치된 군영이었다. 나중에 도성에 있는 내영과 북한산성에 있는 외영으로 나누어졌다(김광기, 1998: 108~115).

수어청(守禦廳)은 1627년(인조 4)에 일어난 정묘호란 군사력 정비의 일환으로 남한산성 방어력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는데, 1632년(인조 9)에 최초의 수어사는 이수일이 임명된 것으로 보아(서울특별시, 1977~1966: 294), 이때 수어청이 설

치된 것으로 추정 된다. 이 때 병력 규모는 12,700여명이었다. 1650년(효종 1)에 북벌계획의 일환으로 남한산성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수(射手), 포수(砲手), 등을 배치하기도 했다. 이후 1680년(숙종 6)에 수어청의 아병을 선발하여 도성 숙위임무를 부여했다. 충융청이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경기도 북부를 방어하는 한편 수어청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경기도 남부일대를 방어하는 책임을 맡은 군영이었다. 후금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국왕이 피신할 수 있는 산성으로 전략성이 중요시되어 1626년(인조 3)에 개축되었다. 그러나 산성내의 방어시설이 갖추어지기 이전에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야 각종 방어시설이 갖추어졌다. 이는 충융청의 삼영체제 안에 있어 독자적인 군영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5군영은 일정한 계획 하에서 일률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소속군사의 성격 또한 한결같지가 않았다. 각 도의 농민들이 번상하는 경우도 있었고 모병에 의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난 후 진전된 신분제도의 붕괴와 부역제의 해이, 그리고 수취제도의 변동은 번상병제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결국 모병제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변태섭, 2001 : 312).

## 2. 왕권강화를 위한 시위조직의 재편성

건국 후 약 2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 온 조선은 임·병 양란의 영향으로 양반들의 자각과 현실 인식으로 의흥위(義興衛), 용양위(龍驤衛), 호분위(虎賁衛), 충좌위(忠佐衛), 충무위(忠武衛) 등 5위체제가 정비되면서 5군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당쟁이 심화되고 왕권이 약해지자, 이를 대비하여 금군의 시위조직이 재편성되었다. 금군의 임무는 국왕의 신변보호를 위한 시립(侍立), 배종(陪從), 의장(儀仗)과 왕실호위(王室護衛)를 입직(入直), 숙위(宿衛), 수문(守門) 등의 일반 임무와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적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특수 임무가 있었다. 이 시대에는 왕권의 강화와 결부되면서 왕권을 직접 호위하는 금군은 호위청(扈衛廳), 금군청(禁軍廳), 숙위소(宿衛所), 장용영(壯勇營) 등의 실직적 호위기관으로 재편성되었다.

호위청(扈衛廳)은 1623년(인조 1)에, 인조반정에 참가했던 군사들을 정규군으로 바꾸어 국왕호위임무를 맡도록 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이는 인조반정이 일어난 후 서인이 자신들의 반정에 동원된 사병들을 공병으로 편성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서인들이 자신들이 성공한 반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창설초기에는 500명 수준이었으나 나중에는 1,000명으로 늘어났으며 표면상으로는 왕권호위였으나 실제로는 사적인 세력 확장을 꾀한 것이었다. 호위청은 대장(각 영의 장수) 4명, 당상관(관인) 2명을 정하여 사모군(私募軍)가운데 대장 각 100명, 당상관 각 50명씩 뽑아 군관으로 삼아 국왕호위의 임무를 맡게 하는 한편, 그들에게 일정한 급료를 지급하였다(김두현, 2005: 106). 왕의 호위를 비롯한 궁중의 호위

를 담당했던 호위청은 그 군사의 수가 적었던 만큼 재정 규모도 작았던 군영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 왕권의 견제를 담당하는 역기능을 피할 수 없었다. 조선 후기의 호위조직인 호위청은 특수조직으로서 구성원이 군졸은 없고 군관만 있는 특수한 군영이며 인원은 1,040명이었다(박준석, 2006: 69).

금군청(禁軍廳)은 1407년(태종 7)에 설치된 내금위(內禁衛), 1425년(세종 7)에 설치된 겸사복(兼司僕), 그리고 1492년(성종 23)에 설치된 우림위(羽林衛) 등의 3위만은 용호영이라는 조직으로 합병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위하여 측근에서 배호하는 금군으로 존치되었다. 금군은 마침내 『속대전(續大典)』상으로 하나의 군영으로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금군은 가장 우수하고 능력 있는 자는 중앙군영의 관직으로 진출하였다(박재홍, 2001: 32~63).

효종은 종래의 금군을 강화하여 종래의 내금위, 겸사복, 우림위를 내삼청으로 통합하고, 기마병으로 바꾼 후 600여명의 병력을 1,000명으로 증원하였다. 결국 내금위, 겸사복, 우림위가 내삼청으로 개칭되었고 현종에 이르러 금군청이 되었다. 이의 수장을 금군별장이라 하였는데, 1682년(숙종 8)에 금위영이 설치되면서, 금군은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었으나 결국에는 기능이 약화된 것이었다. 영조 때는 용호영으로 개칭하였다가 순조 때, 다시 환원시켜 금군청이 되었다.

숙위소(宿衛所)는 1777년(정조 1)에 홍인한의 일파인 홍상범이 호위군과 공모하여 야간에 왕의 침소에 침범한 사건으로 인하여 정조는 숙위체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친족(親族)이 왕의 침실에까지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친족 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의 정치세력을 구축하였는데, 이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숙위소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궁궐 내외와 도성 전체의 호위를 맡게 하였다. 숙위소의 권한은 궁궐내의 위장, 부장, 금군, 도감군병, 각문수문장 국별장을 총괄하고, 궁성 담장 밖의 순찰도 관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숙위소의 기능은 불과 2년 10개월 만에 중단되고 금위체제로서 새로운 장용위를 설치하였다(김두현, 1995: 110).

장용영(壯勇營)은 정조가 영조와 같이 왕권강화를 누리면서도, 자신의 특별한 사정으로 용호영과는 별개로 장용위라는 또 다른 친위부대를 설치하기에 이른 것이다(이태진, 1985: 261). 금군이라는 뜻으로 일명 금여(禁旅)라고 불리는 용호영은 1791년(정조 15)에 호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숙위소, 장용영을 설치하여 직접 왕을 호위하게 함으로써 1,000명을 감하여 600명으로 만들었다. 정조 때부터는 장용영을 두어 여러 친족으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지켜나가기 어려운 왕권을 철저히 지켜나갔던 것이니 이는 시대적 성격과 아울러 왕위계승의 특수성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왕이 어떤 관점을 지니느냐에 따라 국정운영이 달라지고 이와 같이 호위체제도 달라지는 뚜렷한 예를 여기서 볼 수 있다.

### 3. 장용영의 발전과 내·외영 설치

정조 즉위 초인 1779년(정조 3) 9월에 친위세력으로 숙위대장을 겸직하고 있던 홍국영이 축출되고 숙위소가 혁파된 이후, 1782년(정조 6)에 설치된 금군 조직으로서의 호위친병인 장용위가 설치되었고, 신설당시 무예와 통솔력을 가진 정예의 무관 30명으로 출발한 장용위는 1787년(정조 11)에 50명으로 그 군사력이 보강되면서 장용청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다시 이듬해에 장용청을 더욱 강력한 중앙군영으로 확대발전시킨 친위군영이 바로 장용영이었다.

일찍이 즉위 초에 자신을 위해하고 국왕의 정치력을 제약하며, 와해시키려는 척리·노론백과 세력 등의 그 기회를 엿보는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1781년(정조 5) 규장각과 초계 문신제를 통해 친위 세력을 육성한 같은 맥락에서 최상위 무관직인 선전관의 사강의·시사도초계문신제도처럼 시행케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무관의 질을 높여 정예화 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위해 군사력을 향상하고 또한 자신의 개혁정치를 뒷받침하는 근왕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장용위는 처음에 마군과 보군 삼초 정도에 소규모의 병력을 가진 금군조직이었으나 혁신정치의 실현을 위한 정조의 왕권강화 의지가 갈수록 구체화됨에 따라 좀 더 규모가 큰 중앙군영인 장용영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1793년(정조 17) 장용영은 화성 유수부의 승격과 함께 한성부 도성에 내영을, 도성의 남쪽 외곽인 화성에는 외영을 두는 장용내외영제로 일대 확대 개편되었다. 장용영은 국왕의 측근인 이제간, 서유린, 김이소, 정민시, 이명식, 이시수, 서용보 등 주로 시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때 내영인 도성변영의 지휘관은 장용사 또는 장용병 대장으로 바뀌었고 외영은 화성유수로 하여금 장용외사를 겸직케 하였다. 장용영은 중앙군영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갖춘 정례의 군영으로 주목되기에 이르렀고 화성에 주둔하는 장용외영이 이군영의 핵심군사력을 이루었다. 장용외영은 현릉원과 행궁을 수호하고 왕을 호위하는 임무를 갖고 있으며 1794년(정조 18)에 화성 완공 후 군사적 정치적 비중은 더욱 커졌다(최홍규, 2001: 257~259).

장용영 내영의 편제는 척계광의 남군 제도를 모방하여 5사에 각기 5초를 두어 5사5초를 이루었고 장용영 5사 25초는 1787년(정조 11)에 시작하여 8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완성되었다. 장용위는 원래 마, 보병 3초로 구성되었는데, 이후 내외영제가 확립되면서 2초를 더해 1사를 이루었다. 그 군사는 훈련도감군으로 확보하였고 금위영, 어영청, 군기사에서도 충당하였다.

후사는 장용영 향군의 시초로 주 임무는 호위라기보다는 썰과 멧돼지 사냥이었다. 1793년에 장용영 내외 영제가 확립되면서 내영에는 3군 15초가 생성되었고,

이후 동왕 19년까지 2사(10개 초)를 더하여 5사 25초제를 마련하였다.

좌·우사는 대부분 한강 이남의 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배치하였다. 이는 정조의 수원 신도시 건설 계획에 의한 것으로 정조는 자신의 정적을 피하는 방법으로 신도시를 건설하여 자신의 새로운 세력을 키우려 하였다. 따라서 수원을 중심으로 한 군대의 배치는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장용영의 확대에 따른 내외영제의 확립은 정원과 재정 등 군역이 새롭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군영에 부담을 전가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특히 5군영 가운데 총융청과 수어청의 군사가 대부분 경기도 인근 사람으로 구성되었는데,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장용영의 좌우사의 신설에 동원된 군액은 이들 양청에서 충당했기 때문에 양청의 축소를 가져왔다(장철원, 2003: 84).

이 장용영내·외 영제는 노론 훈척세력들의 기존 5군영에 대한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조의 강력한 의지로 창설되었던 장용영은 결국 정조의 죽음 이후 혁파되었다. 이는 정조대 마련된 왕권 강화가 부정되었다는 것이며 실제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친족들에 의한 세도정치가 행해짐에 따라 왕권은 약화되고 말았다.

#### 4. 도성 내·외의 호위

조선후기의 국왕들은 주로 창덕궁에서 거주했다. 국왕이 도성이나 궐 안에 머무를 때는 왕의 최측근 근접호위와 더불어 궁궐수비, 도성수비 등 2중 3중의 비교적 안정적인 호위체계를 이룬다. 그리고 궁궐 내에서도 왕의 시해세력이 생겨 비상시 호위체계를 갖추었다. 또 국왕이 대외적인 출입을 하였을 때 예는 국왕의 신변에 가장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왕의 행차 시 호위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왕이 도성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심지어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그리고 이괄의 난과 같이 외침과 내란으로 부득이 도성을 포기하고 피난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했을 때 국왕의 신변에 대한 호위는 궁궐에 머무를 때와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다.

궁궐을 수비하는 금군과 함께 일반 병력으로 중앙군의 핵심전력인 조선초기의 5위와 조선후기의 5군영이다. 일반병력은 궐내 경비초소와 대궐문에 나누어 궁궐을 수비했다. 이들이 담당하는 궁궐안의 경비초소 중에서 중요한 곳은 대궐의 4문 부근에 위치한 4소이다. 궁궐의 수비 병력을 지휘하기 위해 대궐 안에 도총부와 내병조를 설치했다. 도총부에는 5위도총부와 당상관 2명이 입직하여 궐문과 궐내 4소의 경비병력을 통솔하였고, 내병조에는 병조의 당상관 1명이 근무하면서 금군을 지휘하였다. 왕은 도총부와 내병조를 각각 분할 통솔함으로써 궐내의 군사 변란에



대비하였다.

왕과 왕비의 침전이 있는 내전 주변에는 선전관과 취라치가 주야로 항상 대기하였다. 선전관은 도총부와 내병조의 지휘관들을 소집하거나 도성 내의 병력들을 비상 동원할 때, 연락을 담당하였고, 취라치는 비상소집이 있으면 나팔을 불었다.

국왕의 행차의 규모는 행차목적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분류되었으며, 호위병의 수와 의장물의 규모도 달랐다.

국왕의 행차의 형식은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로 구분되었고, 대가는 중국의 척사를 영접하거나 종묘·사직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행차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때 왕은 면류관을 착용하였다. 법가는 왕이 선농단, 성균관, 무과 전시 등에 행차하는 것으로 중간 규모였으며, 이때 왕의 복장은 원유관과 강사포였다. 소가는 말 그대로 작은 행차로서 왕이 주로 능에 참배하거나 평상시의 대궐 밖 행차, 또는 활쏘기를 관람할 때 이용되었다. 이때 왕의 복장은 군사훈련과 관련된 전투복 차림이 많았다(장철원, 2003: 86~91).

국왕호위는 국왕 신변보호활동, 국왕행차 시설경비활동, 원활한 시위활동 보장을 위한 시위지원활동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시위대는 국왕의 신변보호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중심 깊게 병력을, 배치했으며, 중첩(重疊)된 인벽형성(人壁形性)을 통한 차계선(遮斷線)을 구축했다. 국왕을 중심으로 검사복, 내금위, 중앙군순으로 중첩 배치하여 시위활동을 하게 하였고, 국왕 행차시에는 어가(御街)를 사면으로 호위하게 하였다. 오늘날 3선 경호에 의한 중심깊은 경호활동과 같다. 국왕 행차시에는 도로주변 민간인을 대피(待避)시키고, 대피하지 못한 민간인은 행차하는 국왕일행이 지나갈 때까지 머리를 조아리고 대기토록 통제하였다. 그리고 국왕이 도성외부에 유숙하거나 머무를 때 성곽(城郭) 및 산봉우리 등 높은 곳에 척후병(斥候兵)을 배치했고,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는 복병(伏兵)을 배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경고토록 했다. 또한 국왕 행차시에 대규모 의장대(儀仗隊)를 편성하여 시위케 하므로 국왕의 위용(威容)과 위력을 과시하므로 불순분자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궁궐과 도성의 시설경비는 입직과 행순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즉 고정초소 입직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경비 사각지점의 순찰을 통해 보완하는 합리적인 경비체제였다. 근무계획은 하루 전날 저녁에 병조에서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였으며 근무편성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척간(擲奸)을 통해 근무자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근무에서 배제하는 등 입직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숙직근무자는 근무 중 병기를 반드시 휴대토록 하고 초소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순찰시에는 암호 및 통신표신을 사용하여 통행금지 시간에 허가된 인원의 외 통행을 금지하는 등 사전 경비지역 내 불순분자 침투기회를 막았다. 각 출입문

에는 열쇠관리를 철저히 하고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궁궐에서 퇴출된 자나 탄핵받은 자는 출입이 금지됐다. 특히 국왕의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 등에 대한 출입 행위 등을 엄벌하고 시위병 범죄시에는 무기를 회수하여 만약의 유해행위에 대비하였다.

시위병의 교육훈련은 출직(出直) 기간 중에 실시되었는데 매월 2회의 군사훈련과 3일중 1일의 훈련은 표적사격훈련을 실시하여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휴대무기에 있어서는 개인시위 및 의장장비로 창, 검, 활, 모(矛), 극(戟), 간(干), 월(鉞)등과 갑주, 방패 등을 사용하여 시위활동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갖추었다. 통신장비로는 시청각 식별이 가능한 각종 깃발 및 각(角), 탁(鐸), 고(鼓), 금(金) 등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적인 시위활동이 가능토록 하였다(이충수, 1997: 98~101).

그리고 조선시대 호위대의 선발은 과거제도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정기시험인 무과와 부정기 시험인 도과를 병행 운용하였고 오늘날 공 경호요원은 정부공무원 채용기준에 의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III. 결 론

임·병 양란의 영향으로 현실인식과 서민의 자각에 의하여 조선전기에 형성된 5위(五衛)체제가 정비되면서 5군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5군영 중에서 훈련도감(訓練都監),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의 3군영이 국왕호위와 수도방위를 담당하였고,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은 각각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수도권 외곽방어를 구축하였다. 이들 5군영은 일관된 조직체계라기 보다는 긴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각 군영의 기능은 종전과 유사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개편되고 정비되어가고 있었다.

훈련도감(訓練都監)은 왜란 중에 군제의 개편작업으로 신설된 3수병(三手兵)을 양성하였던 기관이었으며 그 후 차례대로 5군영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어영청(御營廳)은 약화된 후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호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되었으며, 효종은 훈련도감이 담당하는 급료제도를 대신하여 보인(保人)들의 부담으로 번상(番上)하는 체제로 어영청을 운영하고 이를 북벌군에 활용하였다. 금위영(禁衛營)은 숙종 때 궁성의 숙위를 강화하기 위해 훈련도감의 별대(別隊)와 정묘군(精妙軍)을 통합하고 이에 훈련도감의 과잉 인원을 합쳐 설치한 기관이다. 총융청(摠戎廳)은 1624년(인조 2)에 이괄의 난을 계기로 서울과 경기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소속된 속오군(束伍軍)을 중심으로 편성된 군영이다. 총융청은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경기도 일대의 방어를 책임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수도권을 방어

하는데 기여한 군영이었다. 수어청(守禦廳)은 정묘호란 후 군사력 정비의 일환으로 남한산성 방어력 강화를 위해 설치되어 도성 숙위임무를 부여했다.

이 시대에는 왕권의 강화와 결부되면서 왕권을 직접 호위하는 금군은 호위청(扈衛廳), 금군청(禁軍廳), 숙위소(宿衛所), 장용영(壯勇營) 등으로 재편성되었다.

호위청(扈衛廳)은 인조반정에 참가했던 군사들을 정규군으로 바꾸어 국왕호위임무를 맡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어 국왕호위의 임무를 맡게 하는 한편, 그들에게 일정한 급료를 지급하였다. 금군청(禁軍廳)은 효종이 종래의 금군으로 강화하여 내금위, 검사복, 우림위를 내삼청으로 통합한 기관이다. 숙위소(宿衛所)는 정조가 숙위체제를 보다 강화할 목적으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궁궐 내외와 도성 전체의 호위를 맡게 한 기관이다. 장용영(壯勇營)은 정조가 왕권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특별한 사정으로 용호영과는 별개로 장용영이라는 또 다른 친위부대를 설치한 것이다.

조선시대 후기의 호위제도는 금군에만 국한되지 않고 군사제도 전반에 변화가 일어난 것과 함께 하여 왕의 호위와 국가 안전을 겸하게 되고, 금군의 역할 역시 호위에만 국한되지 않았던 것이 특징으로서, 이는 봉당정치로 인한 왕권이 약화되자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호위제도가 그때마다 신설되고 다시 환원되는 현상을 유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 참 고 문 헌

- 김광기(1998). 「조선시대 무예사를 통한 경호제도의 고찰」. 박사학위논문, 건국대 대학원.
- 김두현(1995). “우리나라 경호제도의 사적고찰을 통한 현행 경호행정조직의 발전방안 모색”. 『한국체육대논문집 제18집』 한국체육대학.
- \_\_\_\_\_ (1995). 『경호학개론』. 도서출판 쟁기.
- 김재형(1999). 「조선시대 왕실호위군의 사적고찰」. 석사학위논문, 용인대 대학원.
- 김준석(2004). 「조선후기 정치사상사 연구」 - 국가재조론의 대두와 전개.
- 김종수(1996). 「조선후기 훈련도감의 설립과 운영」,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 김창호(2001). 「신라시대 경호제도에 관한 사적 고찰」. 『경호경비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 서울특별시(1977~1996). 서울600년사,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신명호(2001). 「조선후기 국왕 행행시 국정운영체계」. 『조선시대사학보』.
- \_\_\_\_\_ (2002).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돌베개.
- 육군사관학교한국군사연구소(1968).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후기편」. 서울육군본부.
- 이상철·송상욱(2001). 「조선시대 왕실호위조직에 관한 고찰」. 『한국안전교육회지』 제4권 제1호, 한국안전교육회.
- 이충수(2004). 「조선시대 시위제도 변천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 대학원.
- \_\_\_\_\_ (1997). 「조선왕조시대 시위제도의 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대학원.
- 이태진(1985). 「조선후기의 정치와 운영제 변천」. 서울: 한국연구원.
- 장철진(2003). 「한국 경호제도 변천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우석대 대학원.
- 박재홍(2001). 『현대사회에 있어서 경호학 학문의분야 - 조선시의 금군의 사적 고찰』. 중부대 경호안전학과.
- 박준석(2006). 『경호학 이해』. 서울: 백산출판사.
- 변태섭(2001). 『한국사통론』. 서울: 삼영사.
- 차문섭(1996). 『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 서울: 단국대 출판부.
- \_\_\_\_\_ (1973). 『조선시대 군제연구』. 서울: 단국대 출판부.
- 최홍규(2001). 『정조의 화성 건설』. 서울: 일지사.
- 최효식(2000). 「장서각 소장 자료의 군제사적 의미」. 『장서각』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1989). 『호위청의 설치와 그 조직편제』. 『용암차문섭교수회갑기념논총 - 조선시대사 연구-』.
- \_\_\_\_\_ (1985). “용호영에 대하여”. 『경주사학』 4, 동국대 국사학회.
- \_\_\_\_\_ (1981). “조선시대 우립위의 성립과 그 편제”. 『동국사학』 15·16합, 동국사학회.

## ABSTRACT

### Study on the Guarding System in the latter “Choson” era

Lee, Sung-Jin

The guarding system of the “Choson” era is completed by the Gyeongguk-daejeon(an administrative canon) at the kings “Sejong” and “Yejong”, and it is supplemented at the King “Seongjong”. “Geum-gun” is composed of “Naegeum-wi”, “Gyeombok-sa”, “Wirim-wi” and “Jeongro-wi” in the period before the Japanese Aggression of Korea in 1952, and in the period after the aggression war, the organization of the “Geum-gun” is changed repeatedly according to circumstances in the period after the aggression. They(“Geum-gun”) devote themselves to the protection of kings and the capital defense in the first period of the “Choson” era. The most important change of the “Geum-gun” is the practice of five military units system, three military units of them, “Hunryeon-dogam”, “Eoyeong-cheong” and “Geumwi-yeong”, take charge of the guard of kings and the capital defense, and “Chongyung-cheong” and “Sueo-cheong” take charge of the defense of the outer areas of the capital region with key positions located at “Namhan-sanseong” and “Bukhan-sanseong”(mountain fortress Walls). The function of the “Geum-gun” is extended through the aggressions, therefore the number of soldiers is increased greatly. The guarding system for the country and its royal family is frequently changed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position with themselves-awakening and their understanding of realities.

The reorganization of the “Geum-gun” including “Howi-cheong”, “Geumgun-cheong”, “Sukwi-so” and “Jangyong-yeong” is unavoidable to strengthen the royal rights that are weakened by deposing the king “Injo”. The standing of the existing organizations is changed many times with financial problems.

The enthronement of the king “Jeongjo” is a great epoch in the change of the guarding system.

Key Words : Choson latter period, Royal guard, Executive protection,  
Military system, Jangyong-yeong